

풀베기 현장에서 말벌에 쏘여 치료중 사망

재해 개요

‘17.09.14일(목) 08:23경, 경북 의성군 저수지 제당(堤塘) 풀베기(예초)작업 중, 경사면의 말벌집을 예초기로 건드려 후두부 2곳, 양팔 각 1곳을 말벌에 쏘였고, 08:55경 119구급대원이 〰〰병원으로 후송·치료 중, 15일이 경과한 ’17.09.29일(금) 01:10경 사망한 재해임.

※ 제당(堤塘) : 저수지에 흙이나 돌, 콘크리트 따위로 쌓은 둑

재해 관련 사진



[현장 사진]



[색상에 따른 말벌 집중 실험 모습]

재해 발생 원인

- 벌집 유무 사전확인 미흡
- 벌의 공격에 대한 작업자 방호 미흡(보호구 미착용 등)
- 벌독 해독을 위한 응급조치 미흡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벌 출몰 장소 벌집유무 사전확인(권고)
 - 작업 전, 작업반경 내 벌집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제거하는 등 조치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함.
- 벌의 공격에 대한 작업자 방호(권고)
 - 작업자는, **최적의 복장(밝은 색상의 긴소매, 방충복)** 착용으로 **피부 노출 최소화**
 - **달콤한 (탄산/과일 등)음료 음용, 향수/화장품 사용을 자제**해야 함.

※ 말벌의 색상별 반응 빈도 : **검정** > **갈색** > **빨강** > **노랑** > **초록** > **오렌지**

- 출처 : 환경부 블로그 '자연스러움' <http://blog.naver.com/mesns>

○ 응급조치 대책 확보(권고)

- 벌독에 의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자는,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벌독면역치료를 시행 후, 작업에 투입하도록 관리하고,
- 벌독 응급조치로 활용 가능한, 벌독 퍼짐방지용 응급키트와 항히스타민제, 에피네프린 등 주사제를 상비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함.